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RULES FOR VAMPIRES

가제 : 뱀파이어 규칙

저자 : Alexandra Foulkes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1년 10월 예정

장르 : 10세 이상 / 모험 / 2부작 시리즈



***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세상에 증명하고자 하는 뱀파이어 소녀가 벌이는 오싹하고 환상적인 모험**

주인공 레오노라는 모든 젊은 뱀파이어들이 그들이 뱀파이어의 마을로 온지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통과의례인 '탄생의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노라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레오노라는 과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뱀파이어와 유령에 관한 놀라운 상상력이 가득 찬 세계, 말하는 거미와 살아 있는 숲, 유령의 성이 등장하는 모험과 우정에 대한 소설이다.

뱀파이어를 죽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초보 사냥꾼을 위한 살인 매뉴얼'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법은 피를 먹는 짐승을 완벽히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 책에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생물들을 죽이기 위한 거의 모든 방법들이 적혀 있었는데 좀비, 늑대인간, 육식 인어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다. 이 책에서는 뱀파이어를 죽이기 위해서는 햇빛이나 먹는 스테이크가 아닌 특정한 나무 모형을 이르는 말로 '스테이크'라는 무시무시한 무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스테이크는 초보 사냥꾼에게 필수적인 장비로 뱀파이어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드는 장치였다. 하지만 육백 년 전, 이 책이 쓰이기도 전에 이미 뱀파이어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레오노라'라는 이 소녀는 어둠과 이끼가 가득한 건물 안에서 햇불 하나만 의지 한 채, 나선형 계란을 지나 관 가까이로 몰래 숨어 들었다. 소녀는 그곳에서 초록색 벨벳으로 만들어진 베개 위에 빼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실크로 만든 잠옷을 입고 있었고 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약한 뼈 위로 거의 남지 않은 피부만 갖고 있었다. 이 존재는 바로 뱀파이어로 천 년도 더 된 원시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 레오노라는 그 뱀파이어에게서 시선을 떼고 싶었고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 잡혀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레오노라는 망토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곳에 강력한 뱀파이어 퇴치 무기 스테이크 대신 작은 종을 손에 쥐었다. 이윽고 아득한 침묵 속에서 종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레오노라는 모든 머리카락이 바짝 서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관속에 있던 뱀파이어는 악의로 눈부시게 빛나는 두 눈을 번쩍 뜨고서는 침입자인 레오노라를 똑바로 쳐다 보았고 맹렬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뱀파이어는 드디어 관에서 일어나더니 폭 꺼져 있던 뼈 속에 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해골 같던 머리 위에서는 은빛 머리카락이 흘러 내렸으며 죽어 있던 눈은 검은색 얼음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글린데'라는 이름을 가진 그 뱀파이어는 레오노라에게 왜 자신을 깨웠는지 물었다. 사실 레이디 지글린데는 위대하고 끔찍한 악명 높은 뱀파이어이자 레오노라의 어머니였다. 레오노라는 이제 117살로 어린 뱀파이어들의 통과 의례인 '탄생의 밤'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일 처음 사냥에 나설 터였다. 레오노라는 사냥을 위해 내일 '오토의 끝'이라는 지역으로 갈 예정이었고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들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훌륭한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증명해야만 했다. 레이디 지글린데는 얼마전 늑대인간 때문에 아이만 경이 갈갈이 찢어지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이 직접 뱀파이어 의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만 경을 대신해 뱀파이어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소문에 따르면 지글린데가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고 지글린데 자신 역시 그 결정에 따르기를 원했다. 레오노라 역시 그 결정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레오노라는 이 세상에 자신의 어머니보다 강하고, 모험심이 특출하며 교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글린데는 레오노라에게 레오노라가 흑여 사냥에 실패하면 자신의 명성과 권위에 누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 한 후 다시 관속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

레오노라가 뱀파이어가 되기 전 죽던 날 들어갔던 그 숲, 즉 살아 있는 숲인 드레드발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레오노라는 이제 뱀파이어가 되어 이 숲에 다시 찾아왔고 이곳을 통과해 오토의 끝으로 가야했다. 레오노라는 이 숲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역시 이 숲은 깨어 있었고 매우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 숲은 곧 레오노라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레오노라가 생명체를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는 않았다. 살아 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분명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뱀파이어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오의 탄생의 밤은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가 오토의 끝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레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죽음이 발생했고 레오는 오른쪽 다리를 잃고 자신감까지 완전히 잃어버렸다. 게다가 레오노라는 뱀파이어와 유령들 사이의 오래된 적대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아 유령인 미나와 더 무서운 일에 대항하여 함께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레오는 젊은 뱀파이어들을 노리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오피마스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마침내 그로부터 다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다크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스 포크스 (Alex Foulkes)는 영문학 및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교직원 및 중학교 사서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데뷔 소설이며 학생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제목 : A SECRET OF BIRDS AND BONE

가제 : 새들과 뼈의 비밀

저자 : Kiran Millwood Hargrave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10세 이상 / 문학



*** 타임즈 넘버원 베스트 셀러 작가, Waterstones Children's Book Prize를 수상한 작가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 작가로 자리매김한 저자의 마법 같은 신작**

무서운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이탈리아의 한 도시, 소피아의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뼈들을 이용해 추억의 조각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엄마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소피아와 그녀의 어린 남동생은 이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되었다. 어둡고 치명적인 상상력, 모험심 강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작가의 또 다른 황홀한 신작이다.

시에나의 한 외곽 완전히 폐허가 된 수도원에서 한 소녀가 깨어났다. 소피아의 몸은 앙상한 뼈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해골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는 달은 그녀의 발을 비추고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된 황금빛 뼈로 지어져 있었고 캐노피와 벽에는 사람들의 발가락 뼈, 치아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소피아는 전혀 이 광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곳은 소피아의 안락한 집이었고 오늘은 소녀의 12번째 생일이었다. 다른 벽을 따라 이어져 있는 방에는 소피아의 엄마와 동생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침착한 얼굴로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곧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까마귀 코비스가 아침 식사를 달라며 경쾌하게 지저귌 것이었고 동생 에르민은 그 곳에서도 곤히 잘 것이며 엄마는 일어나 화로에 불을 붙이고 꿀과 우유를 데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소피아를 위한 생일 선물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곧 소피아는 무엇인가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어머니의 작업장 쪽으로 향했다. 소피아는 작업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엄마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곧 침대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피아는 엄마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직도 밤까지 작업 중임을 알아챘다. 소피아는 엄마가 뼈 예술가로 신이 준 재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녀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자신보다 자신의 작업에 더 집중하더라도 결코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진 재능과 작업물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피아의 엄마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아니 이 세계 전체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였다. 소피아의 엄마는 성당의 귀중한 유물들을 담은 화려한 뼈 상자들을 역시 만들곤 했는데 성도들은 그 예술 작품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사용한 턱뼈 예술품을 통해 치통을 치유 받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 뼈

예술품 덕분에 그 뼈에 달는 모든 부위를 치유 받았다고 하기도 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고객들을 위한 더 소박한 상자를 만들기도 했고 귀걸이나, 손잡이 혹은 아예 전체 방을 온통 뼈로 만들기도 했다.

그녀의 기술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진짜 그녀의 재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물론 소피아와 에르민 코비스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직접 그 과정을 볼 순 없었지만 어머니가 단순히 뼈를 이용해 예술품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소피아의 어머니의 작품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 받은 물건들로 탄생했다. 바로 그 뼈의 주인들의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마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겠지만 소피아의 어머니는 이 현상을 요정과 유령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특별한 마법은 뼈로 묶여 있는 것이었고 이 지구에서 탄생한 것이었으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뒤엉켜 있었다. 때문에 남편을 잃은 한 여자가 소피아의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 여자의 남편의 갈비뼈를 이용해 가슴에 달고 다닐 브로치로 만들어 주었고 부츠를 만드는 한 장인이 자신이 아끼던 조수의 뼈를 소피아의 어머니에게 가져 왔을 때는 장인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두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 뼈를 코트 걸이로 만들었다. 그 때만해도 소피아와 에르민은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의 작품이 될 뼈들을 씻고 관리했었는데 천연두가 찾아와 에르민이 그 병에 걸려 죽을 뻔 했던 때 이후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았고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뼈들을 만지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 소피아는 만약 자신이 다시 어머니의 일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이 수도원에서 살면서 영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천연두 이후 소피아의 어머니는 아직 도시에는 천연두가 유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피아와 에르민이 도시에 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해버렸다. 하지만 1년 전 한 낯선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왔고 소피아는 어머니의 작업실 앞에서 우연히 한 키 큰 여자가 소피아의 어머니에게 소피아의 어머니의 과거와 시에나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라고 협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소피아네 가족의 삶은 조금 바뀌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쫓기듯 작업실에 내내 갇혀 일만했고 바로 오늘, 소피아의 생일 전 모든 일을 마치기로 했지만 여전히 바빠 보였다. 결국 소피아의 어머니는 생일 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소피아에게 모든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 잠시 도시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피아와 에르민은 이후 한 수녀원의 고아원으로 보내지지만 그곳에서 수수께끼 같은 새로운 친구와 코비스 덕분에 고아원을 탈출해 도시를 가로질러 뼈들이 알려주는 단서를 따라 시에나의 탑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치들에게 둘러 싸인 세 친구들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고 알았다. 어둡지만 마법 같은 환상과 신비한 비밀들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 (Kiran Milwood Hargrave)는 시인이자 극작가로 『The Way Past Winter』, 『The Girl of Ink & Star』, 『THE DEATHLESS GIRLS』 등의 소설은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